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0 in F♯ major (unfinished; various performing versions) 작곡가: Gustav Mahler (1860–1911)
작곡 시기: 1910년
작품 범위: Mahler의 다섯 악장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대 연주용 판본

IMSLP: Symphony No. 10

Wikipedia: Symphony No. 10

Gustav Mahler의 10번 교향곡은 1910년에 구상한 다섯 악장 작품이다. 첫 악장은 관현악 총보로
정리되었지만 , 나머지 악장에는 악보가 서로 다른 단계로 남았다. 오늘날 다섯 악장을 모두 연주할 때에는 남은 원고에 후대 편집자의 연결과 관현악 작업을 더한다. 그러므로 전곡의 울림에는 Mahler가 남긴 음악과 이를 무대로 옮긴 편집자의 선택이 함께 담긴다.

출판 정보와 자료

이 교향곡의 원고는 악장마다 기록 방식이 다르다.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의 음악자료 소개에 따르면 Mahler는 제 1악장을 관현악 총보로 남겼으며, 제 2악장에도 총보 초안이 있지만 관현악 부분에 큰 공백이 있다. 제 3악장에는 총보 한 면만 있고, 그 악장의 나머지와 제 4·5악장은 3~4단의 단축 총보로
기록되었다 . Cooke 판본의 공동 편집자 Colin Matthews는 제 1악장의 관현악 초안도 Mahler가 나중에
다듬었을 것으로 본다. 원고의 상태가 악장마다 달라 연주용 판본이 채워야 하는 공백도 같지 않다.

Alma Mahler는 1924년 Paul Zsolnay가 원고 일부를 팩시밀리로 공개하도록 허락했다. 그해 Ernst Krenek 이 공연용으로 정리한 제 1악장과 제 3악장은 1924년 10월 12일 빈 국립오페라에서 Franz Schalk와 Wiener Staatsopernorchester의 연주로 처음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은 다섯 악장 전체가 아니라 Andante–Adagio 와 Purgatorio를 묶은 부분 연주였다. 1951년에는 이 두 악장의 악보가 출판되었다 .

Deryck Cooke의 작업은 연주용 완성판이 생겨난 과정을 보여 준다. Cooke는 1960년 12월 19일 BBC Third Programme에서 강연과 함께 미완성 연주용 판본을 방송했고, Berthold Goldschmidt가 Philharmonia Orchestra를 지휘했다. 다섯 악장이 모두 소개되었지만 제 2·4·5악장의 관현악 실현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Alma는 처음에는 Cooke판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방송을 들은 뒤 1963년 Cooke에게 공연 허가를 보냈다. 1964년 8월 13일 Goldschmidt와 London Symphony Orchestra가 Proms에서 Cooke의 첫 완성판을 초연했다. 뒤이어 관현악을 확장한 Cooke II가 1972년에 연주되고 1976년 출판되었으며 , Colin Matthews와 David Matthews가 참여한 개정판 Cooke III는 1989년에 나왔다.

소요 시간

제 1악장만 연주하면 약 25분이다. Osmo Vänskä와 Minnesota Orchestra가 녹음한 Cooke 1989판은 다섯 악장을 합쳐 77분 6초이며, 악장별 녹음 시간은 26분 21초, 11분 27초, 4분 14초, 11분 50초, 23분 14초다. 2026년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는 Rudolf Barshai의 2000년 판본 공연을 약 75분으로 안내했다. 녹음과 공연의 길이는 판본과 연주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관현악 초안에 기록된 편성: piccolo, 4 flutes, 4 oboes, 4 clarinets (1 also E♭), 3 bassoons, 2 contrabassoons, 4 horns, 4 trumpets, 4 trombones, tuba, timpani (2 sets), tam tam, large muted field drum, harp, strings.

이 목록은 완성된 전곡 총보의 편성이 아니라 Mahler가 남긴 관현악 설계에 기록된 악기를 정리한 것이다. 제 2악장에는 큰 총보 공백이 있고, 제 3악장부터는 단축 총보가 중심이므로 이 목록만으로 미완성 악장의 최종 음향을 확정할 수 없다. Rudolf Barshai 판은 원고에 관현악 색채와 대위적 성부를 더해 Cooke판보다 두터운 음향을 만든다.

다섯 악장과 남은 악보

작품의 순서는 *Andante. Adagio*, *Scherzo*, *Purgatorio*, 두 번째 *Scherzo*, *Finale*다. 두 스케르초가 짧은 가운데 악장 *Purgatorio*를 둘러싸고, 비교적 긴 제 1악장과 종악장이 바깥을 이룬다. 표에는 악장별 원고 상태와 함께 Vänskä·Minnesota Orchestra의 Cooke 1989판 녹음 시간을 실었다.

악장 표기	**Cooke 1989**판 **Vänskä** 녹음	**Mahler** 원고의 관현악 상태
I. *Andante. Adagio*	26분 21초	관현악 총보
II. *Scherzo (Schnelle Viertel)*	11분 27초	관현악 총보 초안에 큰 공백
III. *Purgatorio (Allegretto moderato. Nicht zu schnell)*	4분 14초	단축 총보, 첫 부분에 관현악 총보 한 면
IV. *Scherzo II: Der Teufel tanzt es mit mir*	11분 50초	단축 총보
V. *Finale (Einleitung; Allegro moderato)*	23분 14초	단축 총보

악장 배열은 음악의 흐름에서도 대비를 만든다. Stephen Johnson의 2026년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해설에 따르면 제 1악장은 무반주 비올라의 선율로 시작해 두 느린 주제와 춤곡풍의 불안한 움직임을 엮고, 거대한 불협화음의 절정 뒤에 고요한 종결로 물러난다. 이어지는 첫 스케르초에서는 빈과 오스트리아의 춤 리듬이 활기차고 때로는 신랄하게 뒤틀린다. 중앙의 *Purgatorio*는 고통스러운 중간부와 모호한 종지를 지나고, 두 번째 스케르초가 다시 긴장을 끌어올린다. 종악장의 먹먹한 북소리와 긴 침묵 뒤에는 플루트 독주가 나타나 선율을 되살린다. 이 큰 호흡은 원고에 남은 자필 문구와 별개로 음악 자체에서 들리는 불안과 회복의 대비다.

악보의 완성 단계는 연주용 판본이 맡는 역할도 바꾼다. 제 1악장에서는 Mahler가 남긴 관현악 총보의 해석이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편집자가 관현악과 연결부를 더 많이 실현해야 한다. Cooke판에는 Mahler의 음표와 스케치에 더해, 제 2·4악장의 결손 구간에 보탠 재료와 각 악장의 관현악을 완성한 Cooke의 판단이 함께 들어 있다. 그 구분은 이 작품을 미완성 원고이자 연주 레퍼토리로 함께 이해하게 해 준다.

원고의 메모와 제 1악장의 빠르기

제 4악장 표제에는 Der Teufel tanzt es mit mir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종악장 끝에는 Alma를 부르는 이름인 Almschi가 나온다. 제 3·4악장의 원고에도 개인적인 문장들이 남아 있다. 이 자필 기록은 작곡 당시 Mahler의 사적 맥락을 엿보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섯 악장의 줄거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 1악장의 빠르기 표시는 실제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Cooke 판본의 공동 편집에 참여한 Colin Matthews는 자신의 글에서 1마디의 Andante와 16마디의 Adagio를 서로 다른 기본 빠르기로 읽는다. 그는 첫 무반주
비올라 선율을 느린 비가라기보다 움직임이 있는 춤으로 해석한다. Matthews의 독법은 첫 두 구간의 속도 대비를 부각한다. 두 구간을 같은 느린 박으로 묶을지 서로 다른 호흡으로 나눌지에 따라 작품의 문을 여는 방식도 달라진다.

연주용 판본과 녹음

Cooke판은 여러 완성 시도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고 녹음된 판본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각 판본은 원고의 빈 곳을 채우는 정도와 음향의 밀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Andrew Clements는 2011년 서평에서 David Zinman과 Tonhalle Orchestra의 Clinton Carpenter 판을 Cooke·Joseph Wheeler 판보다 더 풍성하고
두텁게 들리는 해석으로 평가했다. 같은 해 발매된 Testament의 음반 묶음은 Cooke의 1960년 강연과
미완성 방송, 1964년 첫 완성판 공연을 나란히 담아 판본이 발전한 경로를 들려준다.

Rudolf Barshai가 2000년에 만든 판본은 Cooke보다 관현악 색채를 더 적극적으로 보탠다. Stephen Johnson은 2026년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프로그램에서 Barshai가 선율에 대위적 성부를 더하고 타악기 색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해 Vladimir Jurowski가 이 판본을 지휘한 공연을 평한 Clive Paget은 실로폰, 기타, 바그너 튜바, 코넷, 첼레스타 등 추가된 음색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Cooke의 절제된 편성과 Barshai의 확대된 관현악은 같은 원고에서 출발해도 무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녹음의 평가 역시 판본과 지휘자의 선택을 함께 다룬다. Andrew Clements는 2021년 Osmo Vänskä와 Minnesota Orchestra의 Cooke판 음반을 평하면서 느긋한 제 1악장과 악기 균형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들었다. 그는 Simon Rattle, Thomas Dausgaard, Riccardo Chailly의 녹음도 이 판본의 대표적인 비교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 평론은 연주용 판본의 명성만으로 특정 해석을 정답으로 만들기보다 , 같은 판본 안에서도 빠르기와 음향의 배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Mahler-Online, GMW F58: Symphonie Nr. 10: 다섯 악장 표기와 1924년 빈 ·암스테르담 부분
연주 기록.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Gustav Mahler: Zehnte Sinfonie”: 원고의 악장별 기록 상태와 소장 ·매입 경위.

Mahler Foundation, Mahler Manuscripts: 1924년 팩시밀리, 1951년 악보, Cooke 0·I·II·III 및
후대 판본의 연혁.
Colin Matthews, “Tempo Relationships in the Adagio of Mahler's Tenth Symphony; and two wrong notes”: Cooke 판본 공동 편집자의 제 1악장 빠르기 해석.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tephen Johnson의 Mahler’s Tenth 프로그램 노트: 악장별
청취 흐름, Barshai 판의 2026년 공연 시간 및 관현악 해설.
Berliner Philharmoniker, Symphony No. 10 첫 악장 프로그램 노트: 제 1악장 단독 연주의
대략적인 길이와 초연 정보.
Naxos, BIS-2396 녹음 정보: Cooke 1989판의 악장별 녹음 시간과 전체 재생 시간.
Andrew Clements, The Guardian, Cooke 판 2011년 음반평: Cooke 판본의 초기 방송 ·공연 녹음과 편집 과정에 대한 평론.
Nicholas Kenyon, The Observer (Guardian archive), Carpenter 판 2011년 음반평: Carpenter, Cooke, Wheeler 판본의 음향 차이를 다룬 평론.
Andrew Clements, The Guardian, Vänskä·Minnesota Orchestra 2021년 음반평: Cooke판의 연주 ·녹음 수용과 Vänskä의 해석에 대한 평론.
Clive Paget, The Guardian, Jurowski·LPO의 Barshai 판 2026년 공연평: Barshai 판의 관현악 색채와 2026년 공연을 다룬 평론.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5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6:52 UTC by 안준영